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함

5/22 월요일

아침의 누림

느 2:17

17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처한 심각한 상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마 16:19

19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마 16:18

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느 2:18, 20

18 나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었다는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합시다.”라고 말하였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들의 손을 힘 있게 하였다.
20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는 것이요. 그러나 그대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몫도 권리도 기념할 것도 없소.”

시 51:18

18 주님의 선한 기쁨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주십시오.

계 21:12, 18

12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열두 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8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나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과 성의 건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이다. 이 건축은 다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것이 곧 연합이다. ... 그러므로 교회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 이 연합이 확장되고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성이다. 그래서 성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건축인 상호 거처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연합이다. 우리는 그분의 거처이고, 그분은 우리의 거처이시다. 이 거처가 작은 규모로는 집이고 큰 규모로는 성이다.

신약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말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심을 말한다. ...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체험하고 아직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을 그다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집으로서의 교회’만 있을 뿐이다. 아직 성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심을 깨닫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는 두 번째 단계의 확장을 얻으실 것이다. 그럴 때 교회는 집일 뿐 아니라 성일 것이다. 집은 주로 생명과 관계있고, 성은 주로 머리와 관계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2 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8 장, 567, 56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성전의 건축을 회복한 후, 여전히 성을 건축할 필요가 있다. 성이 없으면 성전에 대한 보호가 없는 것이다. 성전은 완전하다. 성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 장소는 보호가 필요하다. 성벽은 성전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성벽이 없다면 보호가 없다.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예표이다.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건축은 복음서들에서 처음 언급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한 후에, 베드로는 교회가 건축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음에 교회가 나온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다. 동시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왕국의 열쇠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에 뒤이어서 왕국이 나온다. 이 세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와 왕국이다. 그리스도는 체험되셔야 하고, 교회는 건축되어야 하며, 그럴 때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서신서들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비교 엡 2:19, 딤후 3:15). ...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에는 한 성이 있다. 그 성안에는 성전이 없는데(계 21:22), 그것은 성전이 확장되어서 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신성하고 영원한 중심이시다. 그분께서 내 안으로, 여러분 안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실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증가가 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증가는 교회이다(요 3:29-30). ...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장이며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총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주 많은 지체들 안으로 증가되시고 확장되셨기 때문이다. ... 성은 한층 더 전진된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그리스도의 확장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이다. 이 확장의 두 번째 단계도 교회인데, 이것은 집이 아닌 성인 교회이다. 집인 교회는 반드시 성인 교회로 확장되어야 한다. 성은 집보다 더 크고 더 안전하다. 결국에는 집 전체가 성이 된다. 요한계시록 21 장 22 절은 성안에 더 이상 성전이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전이 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은 장막 곧 거처이다(계 21:2-3). 성은 성전의 확장, 즉 집이 최대로 발전한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2 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8 장, 565-56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2 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8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3 권, 아가서 결정 연구, 5-6 장

5/23 화요일

아침의 누림

느 4:6, 19

6 이렇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에게 일할 마음이 있었던 까닭이다.

19 나는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공사가 크고 방대하여 우리가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엡 2:19-22

19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는 집 안에서 참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있지만, 성의 방면에서는 여전히 성벽의 몇 군데에 무너진 곳이 있다. ... 바로 이 때문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에스라 다음에 성벽의 건축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원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훨씬 더 싫어한다. ... 원수는 집을 건축하는 것은 망가뜨릴 수 있지만, 일단 성의 건축이 완성되면 집을 보호하는 방어물인 성벽이라는 보호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2 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8 장, 570-57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하며, 우리의 누림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권위가 되셔야 한다. ... 오늘날 미국에서 왜 그렇게 이혼이 많은가? 그것은 사람들이 단지 결혼의 누림만을 원할 뿐, 머리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행복하다고 느낄 때 결혼 생활을 누린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면 이혼한다. 만일 그들이 결혼 생활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머리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에게 이혼은 없을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머리의 권위 아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우리는 신성한 권위 아래 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생명과 머리의 권위를 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집을 가질 뿐 아니라, 튼튼하고 높은 성벽이 있는 성을 가질 것이다.

내가 나의 주님의 머리의 권위를 깨달았다면, 나와 다른 성도들 사이에 기쁨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단순히 그들과 하나가 된다. 즉 나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나는 그분의 생명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다. 나는 머리의 권위를 보고, 그 머리의 권위 아래 있다. 성의 실질적인 건축은 모든 형제자매들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전혀 모른다면, 성벽에는 무너진 곳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집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 교회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달아야 한다. 집일 뿐 아니라 성인 교회를 얻으려면, 반드시 더

전진하여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훈련하고 새롭게 하며 변화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는 반드시 머리이신 분께 복종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리를 잡을 것이다.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로 표현되는 몸의 지체들로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성벽에서 우리가 맡은 부분을 건축할 것이며, 그러면 무너진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기는 각자가 반드시 성벽에서 자신의 부분을 건축해야 함을 말해 준다. 나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건축할 수 없고, 여러분도 나를 대신하여 건축할 수 없다. 모두가 자신의 부분을 건축해야 한다. 성벽의 건축에서는 그 일이 주로 더 강한 사람들과 관계되는데, 왜냐하면 그 일이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여전히 나는 성벽을 건축해야만 한다. 그것이 쉽든지 어렵든지 나는 변함없이 그것을 해야 한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나는 성벽이 건축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는 성벽의 건축이 필요하다. 우리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가 몸의 표현임을 보았다면, 이어서 우리는 몸이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음을 보아야 한다. 지체들인 우리는 이 머리의 권위 아래 있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우리는 모두 당연히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성벽이 건축될 것이다. 성벽은 성을 구성하고, 성은 예표상으로 왕국 곧 통치를 상징한다. 주님은 집에 계시지만, 왕은 왕국을 위한 성에 계신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2 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8 장, 571-57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석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2-4 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7, 10 장

5/24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골 3:4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골 1:18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 21:2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전 11:3

3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딤후 3:15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계 21:10-11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에는 한 보좌가 있는 한 성이 있다.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자란다. 보좌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 ...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보좌는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와 권세와 왕권과 지배 권위이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기는 쉽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만,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신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머리들 다이심을 분명하게 말한다. 요한복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서신서들 특별히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심을 말한다. (위트니스리 전집, 1969년, 2 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8 장, 569-57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주요 항목, 곧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머리이신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깨닫고 누릴 때, 우리에게 집으로서의 교회가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 그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닫는다면, 교회는 성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럴 때 교회는 보호받을 것이다. ... 집에 침입하기는 쉽지만, 성의 성벽을 통과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성은 집의 보호물이다.

우리는 모두 지금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지방의 교회에서 밀월을 누리고 있다. ... 지금 모든 사람들은 매우 행복함을 느낀다. 하지만 조만간에 이 밀월은 끝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떤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쁜 느낌이 없을 것이고, 교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운 곳이 아닐 것이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누림이 필요할 뿐 아니라 머리의 권위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닫는 바로 그때에 성벽이 건축될 것이다.

성벽은 보호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분별을 위한 것이다. 성벽은 분별하는 선이다. ... 창세기 2 장에는 성벽이 없는 동산이 있었다. 그래서 기어 다니는 자인 원수가 기어들어 오기가 쉬웠다. ... 그런데 성경의 끝에는 성벽의 높이가 백사십사 규빗인 성이 있다. 그것은 십이 곱하기 십이, 즉 영원한 완전의 숫자이다.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을 분별시키는 완전한 성벽이 있다. 속된 것은 어떤 것도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분별하는 성벽은 규정들이 아닌 변화된 보석들로 건축된다. 새 예루살렘은 진흙

덩어리들이 아닌 변화된 돌들로 건축된 성이다. 진흙으로 된 벽돌은 하나도 없다. 분별하는 성벽은 변화된 돌들로 건축된 것이다. 우리가 변화되면 될수록 더 많이 분별되고, 결국 변화는 분별하는 선이 된다. ...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변화이다. 변화는 분별하는 선이다. 우리에게는 규정이 없지만 변화시키는 생명이 있다. 주님을 찬양하자! 이 변화시키는 생명이 많은 분별을 가져올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는 규정에 속한 것이 전혀 없고 오직 변화된 보석들로 이루어진 건축만이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 장과 22 장에 있는 모든 절을 기도로 읽는다면, 생명의 흐름,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 생명에 의한 변화 등과 같은 생명과 관련된 아주 많은 것들을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화로 말미암아 성벽이 건축된 교회이다.

이 때문에 원수는 성벽의 건축을 미워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성벽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안전이나 보호 또는 방어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벽의 건축이 필요하다. 즉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2 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8 장, 570, 573-57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2 권, 봉사에 대한 기본 공과, 20 장; 장로 훈련, 2 권, 주님의 회복의 이상, 3 장

5/25 목요일아침의 누림**행 2:42**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딤후 1:3-4

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딤후 1:9

9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 건강한 가르침으로 권유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책받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엢 3:9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엢 5:32

32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골 1:23

23 다만 여러분은 계속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서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게 되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여러분이 들은 것이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엢 2:20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신약의 계시와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1 장 3 절과 4 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신약 계시를 개괄하는 용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다. 그것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문맥에 따르면, 다른 가르침들이란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에 있지 않은 가르침들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약의 계시에 근거해 가르치기는 했지만 족보와 율법을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는 다른 것이었다. … 하나님의 경륜은 신약의 계시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그것은 유일하고 완전하고 온전하다. 어떤 것을 그것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제할 수 없다. … 그것에서 무언가를 빼 것은 부족한 것이고, 그것에 무언가를 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성경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 1 장, 14-1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동역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한 후에 디모데전서를 썼다. 이 서신은 전적으로 예방접종이다. … 그렇지만 이 서신의 서두에서 바울은 우리가 매우 엄중하다고 생각할 만한 방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딤후 1:3)라는 이 말은 매우 단순하게 보인다. …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것은 심각한 것 이상이다.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을 죽인다.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허물고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무효화한다. 우리 모두는 심지어 조금만 다르게 가르쳐도 회복을 파괴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말 한 마디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 전체를 망하게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한 메시지를 다 전할 필요도 없다. 단지 우리 자신의 관념을 전하는 한 문장만 말해도 모든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우리는 사역이 ‘무시무시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 우리가 하는 말이 파괴하고 죽이며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가르쳐야 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장로회,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 감리 제도, 성결, 복음 전하는 방법,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 등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유대교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확실히 잘못된 것임에 동의할 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것까지도 분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 오직 하나의 사역만이 조금도 파괴하지 않으며, 항상 건축하고 함양하며 온전하게 한다. 신약성경에서 옳다고 입증되고 권장되며 높여지고 심지어 영광을 얻은 유일한 사역이 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 장 4 절에서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점유되어야 하는지 말해 주었다. 그러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점유되어야 했다. … 오직 하나의 사역만이 항상 건축하고 결코 파괴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성경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관참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확신하지 말라. 성경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관참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르침도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단지 올바르게만 한 가르침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는 가르침을 원한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왜 같은 것을 말하라고 간청했는지를(1:10)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옳고 그림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분열적인지 분열적이지 않은지로 평가해야 한다. 오직 한 종류의 사역만이 건축하며 결코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유일한 사역이다. (장로 훈련, 3 권, 이상을 실행하는 길, 4 장, 65-7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교회에 대한 사탄의 전략, 소책자, 영문판; 위트니스 리 전집, 1990 년, 3 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실행을 위한 기본 원칙들, 영문판, 258-265 쪽

5/26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16:17

17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딤후 3:10

10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권고한 후에 거절하십시오.

요이 9

9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빛나가 그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며,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엡 4:14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롬 12:3, 16

3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16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마 5:8

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에 관하여 한 범주로 분류되는 부정적인 사람들, 곧 신성한 건축물을 파괴하는 이들이 있다. 신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일곱 종류의 파괴하는 이들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심적인 가르침 이외의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분열적인 가르침의 바람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다(엡 4:14, 딤후전 1:4). 둘째로, 이단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벧후 2:1, 요이 7-11). 셋째로, 당파적이고 종파적인 사람들이 있다(딤후 3:10). 넷째로,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다(롬 16:17). 다섯째로, 지위를 얻으려는 야심이 있는 이들이 있다(요삼 9). 여섯째로,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리와 같은 이들이 있다(행 20:29). 일곱째로, 믿는 이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행 20:30).

많은 이들이 원수에게 선동되어 교회의 건축을 파괴하려고 애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5 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

—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하심, 4 장, 168-16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에게서 떠나는 것(비교 롬 16:17)은 파괴적인 혼돈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보존될 것이며,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분열적인 말을 듣는 데 열려 있다면, 우리 안에 독이 주입될 것이다. 이 독은 우리가 회복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 것이고, 회복에 대한 우리의 사기를 약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교회 집회들에 참석하는 데 냉담해질 것이고, <회복역 성경>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을 읽는 데 냉담해질 것이다. ...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접종이다. 우리가 반역과 분열이라는 사탄적인 혼돈의 세균에 대항하여 보존되려면 그러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옛 창조에서의 사탄적인 혼란과 새 창조를 위한 신성한 경륜, 3 장, 86 쪽)

우리는 야심을 경계해야 한다. 야심은 형편없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야심이 있다. 야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동역자와 장로로 섬기기 위해 나왔다면 결코 자신의 야심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 심지어 우리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야심을 갖도록 양육한다. 야심이 없다면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것이고 학교를 졸업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나 동역자와 장로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 여러분은 야심을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야심은 동역자와 장로인 여러분의 책무를 무가치하게 만든다. 여러분에게 야심이 있다면 그 즉시 여러분은 끝난 것이다.

순수한 마음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의도나 목적이나 동기나 행동에서 어떤 형태의 간교한

야심도 없는 정결하게 된 마음이다. 여러분이 동역자나 장로로서 책무를 다하려면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 교회 안에서 유용한 몇몇 형제들은 겉으로는 겸손하게 행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높아져 있다. 그것이 바로 간교한 야심이며 그들의 진보를 막는 작은 여우이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더 주신다면 그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야심이 없이 겸손한 이들만이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주님께 은사들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종종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도록 안배할 필요가 있다. 안배를 받지 못한 이들은 겉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나 표정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적으로 그들은 침체되고 기쁘지 않다. 이것은 다른 이들과 경쟁하여 으뜸이 되려는 감추어진 야심에 속한 음흉한 일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2 권,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 4 장, 80-8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옛 창조에서의 사탄적인 혼란과 새 창조를 위한 신성한 경륜, 1-4 장

5/27 토요일

아침의 누림

마 16:18

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계 1:17-18

17 그분을 뵈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18 살아 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민 6:6-7

6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7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 분별된 표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요 10:10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벤전 1:3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엡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은 사탄의 ‘동역자들’이다. 죽음을 퍼뜨리는 사람은 사탄과 협력하는 사람이다. 사탄의 목표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사람이 죽음에 묶이게 하는 것이다. 죽음은 사탄의 일의 특징이다. 사탄의 일의 최종 목표는 죽음이 사람 안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집회는 인수가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다. ...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회에서 반드시 죽음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삼키고 생명을 해방해야 한다. ...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 없음을 보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음이 가장 추악한 것이고, 생명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 생명은 어떤 교리가 아니다. ...

생명은 흥분하는 것이나 좋은 느낌도 아니다.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워치만 니 전집, 44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4), 113 장, 21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풍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의 증거이기 때문에, 교회의 특징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특징이어야 한다. ... 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라는 말씀으로 압축될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릇이 된 목적은 바로 이 생명과 부활을 표현하는 것이다. ...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생명이며, 사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바로 죽음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요 10:10). ...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며, 교회는 이

생명과 부활의 그릇이다. ...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릇인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을 분배하신다.

오늘날 하나님의 목표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은 명확하게 교회를 겨냥하여 공격한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반드시 죄나 세상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너무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십 센티미터나 되는 병 입구를 이 센티미터의 병마개로 막을 수 없다. 단지 죄와 세상만 처리하는 것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사탄의 궁극적인 무기는 바로 죽음이며, 사탄은 죽음으로 교회를 공격한다. 죽음은 그리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은밀히 교회 안에 기어들어 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세상이나 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더럽고 기만하는 죄들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세련된 것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사탄은 죽음에 속한 이러한 일들을 이용하여 손쉽게 교회를 공격한다.

마태복음 16 장 18 절은 주님의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이고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음부가 곧 죽음이다. ...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교회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 교회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다면, 죽음과 생명의 차이를 분별할 것이며, 음부의 문들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좋은 교리나 좋은 신학이나 훌륭한 성경 해석이 아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곧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다.

어떤 교리나 사상이나 신학이나 성경 해석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치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 것만이 음부의 문들을 이길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단지 죽음이 변장한 형태에 불과하며, 사탄의 공격을 이겨 낼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만지지 않고 죽음을 교회 안에 가져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명으로 채우시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게 하시기 바란다. (워치만 니 전집, 44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4), 114 장, 229-231, 2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44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4), 113-114 장; 워치만 니 전집, 42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2), 37, 39 장; 교회의 정통, 3 장; 워치만 니 전집, 47 권, 권위와 순복, 15 장

추가로 읽을 말씀

CWWL, 1958, vol. 2, *The Building Work of God*, ch. 9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1:4, 17; 5:10, 17, 21; 6:4, 11, 19, 22-23; 8:2, 6, 10, 13, 29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17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Two Men—Adam versus Christ

Scripture: 로마서 5:12-21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Romans*, msgs. 10, 33; *Crystallization-study of the Complete Salvation of God in Romans*, ch. 2

Supplemental Reading: *Crystallization-study of the Epistle to the Romans*, ch. 12

Hymn: 593

churchinnyc.org/bible-study

찬송: 639 사망 이긴 부활의 생명은 (中:472)

1 죽음 이긴 부활의 생명은 창조되잖은 영원한 생명 파괴되잖은 승리의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네.

2 죽음 이긴 부활의 생명은 죽음 통해 더 확증되었네 죽음은 다만 기회를 주어 이 생명 풍성 나타나게 해.

3 죽음 이긴 부활의 생명은 죽음과 매장 통해 번식해 고난 통하여 자라는 생명 풍성한 열매 더욱 얻었네.

4 죽음 이긴 부활의 생명은 모든 방해와 장애 돌파해 어둠과 음부 권세 이기고 죽음 삼키고 생명 해방해.

5 죽음 이긴 부활의 생명은 신성의 모든 충만 나타내 하나님 의와 성결 산출해 하나님 영광 형상 나타내.

6 죽음에도 그 능력 발하는 부활한 생명 얻기 원하네 이 생명은 곧 사신 주 예수 체험 통하여 깨닫게 되네.

5/28 주일

아침의 누림

골 3:1-3, 12-17

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2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3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